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h.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6. 16 ~ 2024. 7. 6 제301호

유럽 부흥의 열기... 佛·和蘭·伊·헝가리서 수만 수천 명 예수께 나아와

유럽에서 동성애, 낙태, 기독교 대상 증오범죄 등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프랑스(佛)와 네덜란드(和蘭), 헝가리와 이탈리아(伊)에서 수만 수천여 명이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부흥의 불을 지피고 있다.

CBN뉴스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예수를 위한 행진'에 2만 5000여 명이 참여해,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리 거리를 가득 채웠다. 에펠탑 근처에서 메시지를 전한 장 룩 트라첼(Jean Luc Trachsel) 목사는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한 가지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첼 목사는 "하나님께서 프랑스에서 이 일을 하셨다면 유럽 전역과 전 세계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하

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다. 지금은 추수의 시기이며 부흥이 시작됐다. 혼돈, 전쟁, 반대,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도 6만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왈리비홀랜드에서 열린 제54회 오프베킹 성령강림절 콘퍼런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다. 이번 성령강림절인 5월 19일 열린 콘퍼런스에는 70만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오프베킹의 루벤 플라흐(Ruben Flach) 총감독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한다."며 "가까이 오라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

신지 알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익숙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말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결단하며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 헝가리 미쉬콜츠의 DVTK 스타디움에서 '오늘이 그날(This is the Day)' 예배집회에 1만 3000여 명이 참석해 1300명이 헌신을 결단했다. 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사도교회 주최 2024 사도 콘퍼런스에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의 집회에 1만 1000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CBN뉴스는 로마 가톨릭의 본산에서 이런 대규모 개신교 모임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GPNEWS]



김봄 선교사 (평촌 나무심자교회)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이 되었어요”

12살 때 버려진 한 아이. 한줄기 빛이 비쳤다. '내 외로움과 쓸쓸함이 부모의 보살핌을 대신했던 시간들. 뱃속까지 스며든 아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 미혼모와 알코올 중독자라는 고통의 터널 속에 빠진 자매. 그녀에게 어느 날

마음의 고통으로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 온다. 십자가의 체혈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김봄 선교사를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4)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방법

가인과 아벨은 에덴동산 밖에서 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어김없이 집행하시므로,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므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 그 길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가졌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세주가 사

탄의 머리를 부수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또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믿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생생하게 나타나 보이려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누군가가 가인과 아벨에게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바칠 것을 가르쳐 주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짐승을 죽여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시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22 KRV)

사람의 죄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왜 꼭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레위기 17:11 KLB)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인해 죽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시며, 그때까지는 사람의 죽음 대신 짐승의 죽음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대속'이다. 그것은 생명이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법, 즉 죄인을 대신해 어떤 짐승이 죽는 희생 제사를 의미했다. 희생 제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피로써 죄의 값을 대신 갚는다고 하셨다. '속죄'란 말의 원래 의미는

'죄를 덮어 가린다'는 뜻이다. 그 피가 사람의 죄를 덮어 가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으신다. 그때 사람은 의로운 자로 여겨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망을 대신하는 '대속'과 죄를 덮어 '속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르완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다



▲ 자전거를 타고 있는 르완다의 어린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제공: WMM

평화 로운 르완다의 일상. 자전거 뒷자리에서 '브이(V) 자'를 그리는 아이들의 웃음이 미소를 머금게 한다. 평온해 보이지만 한 르완다에서는 사실 30여 년 전 대량학살과 인종청소가 일어났다. 1994년 4월 6일 비행기 사고로 후투족 출신 쥐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을 계기로 후투족 정부가 투치족 무장조직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대량학살이 시작됐다. 1994년 4월 7일~7월 15일 약 100일간 이어진 학살로 약 100만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옆집 아저씨에게 가족을 잃고 사랑했던 이웃

이 원수가 됐던 아픈 역사를 지나는 르완다였다. 몇 해 전 BBC는 28년 전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남성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한 르완다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버나넷과 그의 남편 카베라 베다스테는 투치족 출신이다. 후투족인 그라티양 니아미 나니는 투치족 공격에 함께했다. 대학살이 끝난 뒤 그라티양은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졌다. 2004년 있었던 공판에서 그라티양은 버나넷에게 자신이 그의 남편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자백하고 사과했다. 그 공판에서 버나넷은 그라티양을 용서

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낀 그라티양의 딸 안커리제는 버나넷의 집을 찾아가 살림과 농사일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버나넷의 아들 알프레드와 사랑하게 됐으며 버나넷은 이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르완다 영혼들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3~14) [GPNEWS]

폴란드 바르샤바, 관공서 내 십자가 전시 금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시장이 최근 시청과 공공건물에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 전시를 금지했다고 브뤼셀 시그널이 보도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규정에 따라 폴란드 바르샤바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공식 행사는 세속적인 성격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르샤바는 폴란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십자가를 관공서에서 볼 수 없는 첫 번째 도시가 됐다. 이번 정책은 대체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동안 폴란드가 소련의 일부였을 때도 정부 건물에서 종교적 상징물 전시를 금지됐기 때문이다. 십자가 설치 금지는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이후, 폴란드 국회의사당을 비롯 공공건물에 다시 십자가가 등장한지 35년 만이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후 폴란드 정치인 마리우스 블라슈차크(Mariusz Błaszczak)는 소셜 미디어에 공산 정권에 의해 살해된 저명한 신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 체제와 정권은 단지 육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영혼에 도달하고 내면의 자유와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썼다. 폴란드 의회 의장인 시몬 홀로니아(Szymon Holownia)는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사당 벽에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관공서에 십자가를 걸지 않겠지만, 오늘날 폴란드에서 십자가를 벽에서 떼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전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공공건물에 십자가를 전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는 한 학부모가 공립학교에서 십자가를 철거해 달



▲ 폴란드 국회의사당에 있는 십자가. 출처: Flickr, Piotr Drabik / CC BY 2.0

라고 이탈리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라우치 대 이탈리아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공립학교의 십자가가 유럽 연합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벽에 걸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상징이며, 교훈적인 연설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학생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우크라이나, 남성들 징집 피해 탈출 시도... 최소 33명 익사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병역을 피하려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국경을 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영국 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징집 대상 연령인 18~60세의 우크라이나 남성 수천 명이 이 나라 남부 국경인 티사강을 헤엄쳐서 루마니아로 탈출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이 강에서 최소 33명이 익사했으며 최연소 사망자는 20세에 불과했다.

러시아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징집하는 당국과 이를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는 이 땅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황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홍콩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화 운동가 14명 유죄 선고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화 운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 5월 30일 전 입법회 의원 령콕홍, 람척팅, 레이먼드 찬과 언론인 출신 기네스 호 등 민주화 운동가 14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BBC는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은 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명의 일부"라고 전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민주화 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홍콩 정부를 책망하여 주시고 자유를 억압당할 위기에 있는 홍콩 시민들이 주의 공의를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사 주의 위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소서.

거룩한방파제, 동성애 반대 집회 20만 명 운집

서울 을지로~종각역 일대에서 서울퀴어문화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동성애 반대 집회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대회장 오정호 목사)도 지난 1일 대한문 앞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전국과 전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 2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동성애와 같은 반성경적 사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폭망한다."며 "6.8 성혁명의 여파가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이 거룩한방파제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편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이를 정당화시켜 반기독교 세상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한국교회가 거룩한 분노로 깨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GPNEWS]

美 루이지애나, 학교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 통과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가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뉴스맥스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공화당 주지사 제프 랜드리(Jeff Landry)의 서명이 필요하다.

도디 호튼(Dodie Horton)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 28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79대 16으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5월 16일 이 법안을 30대 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십계명의 텍스트가 최소 11인치×14인치 크기의 포스터에 인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튼 의원은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교사들에 대한 질문에 "무신론자나 무슬림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PNEWS]



▲ 미 공립학교의 십계명 돌판. 출처: 유튜브 채널 B.C. Begley 캡처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나이지리아 하우사족, “성도는 예수 위해 죽을 준비 되어 있어야”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족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유럽 기독교언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최근 전했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하우사 기독교인인 캐논 라자루스 비트루스(Canon Lazarus Bitrus)는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자면 그 믿음은 죽을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된다.”며 “(성도는)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사족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하우사랜드에서 국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 TWR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있다.

한 나이지리아 청취자는 2023년 3월 하우사어로 방송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를 듣고 소셜 미디어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라며 “이 가르침은 정말 진실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진리와 희망을 봅니다.”라고 말했다.

하우사랜드는 국가나 주, 지방이 아니다. 하우사족이 우세한 나이지리아 북부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하우사어 사용자는 현재 총 16개국에 걸쳐 흩어져 있으며, 전체 하우사어 인구는 5540만 명에 이른다. 그중 3800만 명이 나이지리아를 고향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대부분 북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하우사족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박해 실태를 조사하는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는 매년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

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

박해를 각오하며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박해’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WR 나이지리아의 책임자인 조슈아 아이론디(Joshua Irondi)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동부나 남부 지역보다 더 굳건히 서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TWR은 15만 와트의 오아시스 송신기를 통해 하우사어로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하우사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거나 질문을 갖게 된다.

신앙 프로그램인 ‘성경을 통해(Thru the Bible)’의 한 청취자는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성경을 통해’의 또 다른 청취자는 “저는 무슬림인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듣게 되어 기쁘고 자세한 내용을 위해 계속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앙 프로그램인 ‘그리스도를 세상에(Christ to the World)’의 한 청취자는 “이 프로그램을 들은 분이 우리를 찾아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를

제자 훈련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위험한 여건의 예배자들을 위한 기독교 방송

전 세계 미전도종족을 집계하는 조슈아 프로젝트는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인 부족을 미전도종족으로 분류한다. 그 정도의 현지인 신자만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하우사족은 확실히 미전도종족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북부에 하우사 기독교 재단을 설립한 하우사 기독교인인 J.D. 지드슨(Jydsen) 대사는 조슈아 프로젝트가 하우사 기독교인의 수를 상당히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드슨은 “50km 이상 넓이에 하우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우사랜드에 가면 5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지만 모스크는 하나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우사 기독교인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전체 인구의 30% 정도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 수와 무관하게 하우사 기독교인들은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드슨은 “교회가 공격당하고 목회자들이 납치당했다.”며 “지역민들은 피난민이 되었고, 주민들은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하우사 기독교인인 키치메 불루스(Kichime Bulus)는 “우리 모두는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며 “사람들이 납치되고, 살해당하고, 집이 불타고, 교회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 나이지리아의 한 거리. 출처: Daniel Sikpi on Pexels

박해받는 신자들을 돕고 있는 영국 릴리즈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 주에만 나이지리아에서 100명의 기독교인(모두 하우사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님)이 납치당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는 소녀 납치다. 10년 전 치복 마을의 학교에서 276명의 소녀들이 납치된 사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의 관심은 시들해졌지만 납치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독교 방송 TWR은 하우사족에게 희망을 가져다준다.

아이론디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교회가 폭격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하지만 라디오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우리 방송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이론디는 “하우사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창의적으로 나누고 있다.”며 “그들 중 일부는 공격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공격할까 봐)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장비를 최고 볼륨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메시지를 듣는다. 그들은 실제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우사족

TWR은 하우사어로 된 9개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언자들’, ‘의의 길’, 현지 제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TWR의 서아프리카 책임자 압둘라예 상호(Abdoulaye Sangho) 목사는 “무슬림 신자들의 간증 프로그램인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이야기’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우사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호기심이 생긴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GPNEWS]



니카라과, 기독교 탄압... 종교를 위협 요소로 여겨

니카라과 정부가 목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선교단체 대표를 허위로 고발하는 등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회주의 정권이 기독교를 체제 위협 요소로 여겨 탄압한다는 것이다.

세계 기독교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해 말 존 브리튼 헨콕(John Britton Hancock) 마운틴 게이트웨이(Mountain Gateway) 대표를 근거 없이 돈세탁·조직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헨콕 대표는 해당 단체 설립자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서 20년 넘게 선교해왔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 및 목회자 11명도 적법 절차에서 배제된 채 기소됐고 목회자들은 투옥된 상태다. 헨콕은 지난해 기쁜 소식 니카라과 집회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 1일 니카라과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그가 떠나고 난 직후,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해 마운틴 게이트웨이에 대해 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차량 47대와 부동산 4채 등 자산 전체를 압류했다. 이와 함께 쿠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라질, 온두라스, 멕시코 등 6개국에 공문을 보내 헨콕과 가족이 입

국하면 니카라과로 송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니카라과의 교회 탄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올해 발표한 세계기독교박해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2018년부터 반대파를 추방하거나 투옥, 사형시켰다. 민주화 활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는 테러리스트나 암살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보는 니카라과 국민의 저항을 불러와 최소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주변국으로 추방됐다.

이런 사정에도 헨콕 대표는 니카라과에 주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왔다. 그는 1996년 선교 사역을 시작해 2013년에는 니카라과로 사역을 확장했다. 이후 현지 제자 훈련과 교회 개척, 구호활동과 재해 복구 사업을 도맡는 등 니카라과를 힘써 섬겼다. 특히 지난해는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Managua)에서 8회에 걸쳐 대규모 전도행사를 조직했다. 약 100만 명이 참여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다. 헨콕 대표는 대규모 인

원이 모인 이러한 전도행사가 니카라과 정부를 자극한 것으로 바라봤다. 대규모 인원의 단합을 싫어하는 정부가 이번 행사에 위협을 느끼고 허위 고발했다는 것이다.

헨콕 대표는 이번 일을 맞아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내보였다. 그는 “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며 “나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나라 전체를 흔드셨음을 알고 그분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GPNEWS]



C.H.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김봄 선교사 (평촌 나무십자가 교회)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송 작가 일을 하다가 지금은 기록하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김봄 선교사입니다.
 - 기록하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생소한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주세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는 선교사예요. 탈북민 선교를 기록한 ‘복음 안에 하나 되리라’(예수전도단) 시에라리온에서의 선교를 기록한 ‘작지만 피어있는 꽃들’(브랜드킹맨)이 있고 지금은 탄자니아에서의 선교 이야기를 출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학교나, 특정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현지의 선교사님을 돕고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는 게 저의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다

- 기록 선교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탈북민 선교를 할 때부터 기록을 해 왔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책을 내거나 신문에 기고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때는 이 기록하는 게 부수적인 일이었어요. 기록 선교사의 정체성이 확고해진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시에라리온에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내면서 기록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탈북민 선교를 언제 하신 거예요?
 “교회는 2003년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10년경이었어요. 그전에는 주일날 예배 시간 아니고는 성경을 펴보지 않을 정도로 날라리 신자였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20대에 주사와 운동권이었던 저에게 북한은 환상의 나라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 북한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나라였어요. 한동안 북한을 품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걸어서 북한을 건너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온 로버트 박 선교사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다가 본격적으로 북한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탈북민이 개척한 탈북민 교회였거든요. 그 후 북한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고

탈북민들의 친구가 되면서 탈북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디다.”
 -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궁금합니다.
 “저는 절집 아이였어요. 어릴 때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안좋았던지 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절에서 생활하고 계셨던 할머니가 저를 절에서 키우셨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머니가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은 싸우느라 저와 동생들을 키울 여력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저는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12살 이후로 어떤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인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공장에서 위장 취업한 대학생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함께 공산당 이론, 주사

했지만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을 리라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걸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됐어요.”
한때 주사파 운동권으로 허망한 시간 보내다 주님 만나
 - 그럼 처음 교회는 어떻게 다니다게 되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를 곁에서 지키고 돌본 저의 딸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때가 딸이 7살이었어요. 하루는 자기 소원이니 교회에 딱 4번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해준 것도 없고 교회는 나가줘야겠다는 마음에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죠. 제가 하도 술을 많이 먹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직장에서 잘렸어요.”
 - 어떻게 작가가 되셨어요?
 “공장에서 해고되고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



제공: 김봄 선교사

구의 도움으로 학원에도 6개월 정도 다니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러다 처음으로 쓴 작품이 공모전에 최우수상이 되는 바람에 드라마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계속 학원에 다닐 상황도 못되었고 돈을 벌어야 해서 포기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후에 한국 최고의 작가가 되겠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복음 없이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가난한 미성공에서 드라마 작가가 되고 형편도 좋아졌는데, 복음이 없으니 여전히 곤고한 인생이었어요.”
 -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드라마 작가가 되었지만 작가 지망생의 시절이 없었던 저는 방송 현장에서 드라마 작가가 받아야 할 훈련의 분량을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겨우 다니고 있던 교회도 작가가 된 이후 바쁘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고 있던 때였어요. 5년이 지나자 황폐할대로 황폐해진 나에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없는 내일 어떻게 살래?’ ‘너 왜 살고 있니?’ ‘죽어봐.’ 이런 환청들이 들릴 때면 죽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높은 건물 앞이나 차들이 질주하는 거리를 지날 때, 지하철이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때요. 당시에는 지하철에 안전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실행할 때마다 누군가 막고 있는지 사소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작업실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예외 없이 환청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살아보니 어때?’ ‘내일은 더 엉망일 거야.’ 앞에 8층 건물이 보였어요. ‘그래 저곳이야.’하며 8층 건물 옥상 앞까지 올라갔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떻게든 죽고 싶어.’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 7층이 교회였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시작하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는 ‘이리 와서 먹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먹어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내 딸아, 이리 와서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이때까지 ‘죽어라.’는 환청만 들었는데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듬해 집회를 통해 성령 체험을 한 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건 내 욕망이었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달려갔던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드라마 공모전 수상으로 드라마 작가의 길을 걷다

- 선교사의 소망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어요?
 “그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생명의 말씀이 된 순간, 평평 울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이제부터 다르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몽골 단기 선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가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주위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술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예배 시간에 우는 것도 모자라 몽골 선교를 따라가겠다고.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나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생전 처음 간 몽골 선교에서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막연한 생각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되기까지 시간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 드라마로 써도 될 만큼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네요. 이후엔 어떻게 되셨어요?
 “이후 탈북민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드라마 작가는 것도 잊을 만큼.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방송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북한 선교사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사역들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만약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공모전에 당선을 시켜서 방송 현장으로 복귀시켜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또다시 공모전에 당선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드라마 작가가 되어 방송 현장에 복귀는 했지만 만만치 않았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이렇다가 죽을 것 같아서 순회선교단의 훈련을 받기로 했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겠다 이런 마음보다 일단은 숨이라도 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6주간 기쁨의 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총체적인 복음 강의를 들었어요. 이어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시에라리온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 선교사에 대한 꿈이 더 커졌어요.” [GPN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① 작가 활동 시절 ② 몽골 선교에서 몽골 아이와 함께 ③ 탄자니아에서 현지인 아이들과 함께. 제공: 김봄 선교사

파 이념들을 배우게 되면서 공산주의 노동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사파 이념은 제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한반도가 주체사상으로 통일이 되면 인민이든 민중이든 모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조선인민공화국은 꼭 밝고 싶은 낙원이었고, 김일성 주석은 꼭 만나보고 싶은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내가 믿었던 이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념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를 받게 됐어요. 그때 피신하러 간 수녀원에서 아이의 아빠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수배가 풀리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과 힘들을 예상

하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백일장 대회에서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기는 했지만 오래전 저에게 일어난 현실이기도 한 일이었어요. 꿈에서 깨어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내가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썼구나. 어릴 때 나의 꿈이 작가였구나.’ 그래서 작가가 되기로 했죠. 글만 쓰면 작가가 되는 줄 알았고 작가가 되면 돈도 잘 버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작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거의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한다는 자막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도, 학벌도 상관없고 상금도 천만 원이라는데 저거나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뭘 알아야죠. 그때부터 작법서를 사서 공부도 하고 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소한 습관과 씨름하다

키프로는 지난달 8일부터 긴 연휴로 짧은 봄방학을 가졌다. 사실 연휴 전, 키프로 호스텔 안에 큰 아이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었다. 큰 형들이 오히려 어린 동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며 잘못된 삶의 크고 작은 습관들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일이 있었다. '나는 형이니까.' 하며, 쉽게 동생들의 비누나 생활 용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동생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드러났다. 그렇게 스스로 이것저것이야 하며 허락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내고 세우는 일이 있었다.

'아직도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라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늘상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지식은 있으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이 실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삶이 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도 가르침이 되는 시간이었다. 어린 동생들은 오히려 순종하며 선을 행하다가 나



▲ 파키스탄 키프로 공동체 아이들. © 복음기도신문

심하기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마음이 아팠다.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었다. 지금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쉬운 마음으로 핑계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이제는 익숙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가정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연휴(4월 1일)를 맞아 키프로에 방문해 주셨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선물도 포장해서 나누어 주셨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을 나누어 주셨다. 제법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편찮으신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셨을까 염려했는데, 모두 기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 우리도 감사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 퍼레야드 성도님은 교장선생님



옛 사람의 옷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으로서 교육에 대해, 배운 것들을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을 나누어 주셨고, 새로 오신 와섬 성도님께서 위와 메시지를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내리는 삶에 대해 나누어 주시며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시기도 하셨다. 수잔나 자매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직접 만든 디저트로 섬겨주었다. 수잔나가 보람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종종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나누어 주는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수잔나 가정의 현재 재

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섬겨주어 더욱 기쁜 시간이 됐다. 워낙 시골이다 보니 어린 자매 성도들은 박물관에서 보던 풍경에 신기해하며 연신 사진을 찍기 바빴다. 청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도전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고 좋은 시간이 됐다.

가정교회에 두 가정의 더 함께하게 됐다. 이로써 0세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됐다.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도 성도들 안에도 기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각 사람 안에 조명하시는 말씀이 짙어져 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마주하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 성도로 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GPNEWS]

파키스탄=백한길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요일 5:4)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옳고 그름의 척도로 삼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 유행, 관념,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익하게 느껴진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조롱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더 좋아한다.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당신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사업장 카운터 옆에 항상 신문을 비치해 두고 있어요”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 사업장 카운터 옆에 비치된 신문. 제공: 홍성문 집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되곤 한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나가서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복음기도신문 한 부만으로도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게끔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느낀다. 손님들께서 계산을 하시는 카운터 옆에 항상 복음기도신문 2부를 비치해 두고 있다. 손님들께서 나가실 때 한번은 눈길이 가 있게 마련인데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수년째 단골

손님들이셔서 한 번쯤은 신문을 유난히 보고 계실 때 그때 손님에게 말을 건네기가 편하다. “손님도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건네면 어떤 분은 “아니요. 이 신문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봐요.”라고 대답을 하신다. 손님의 시간을 뺏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단체에서 여러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린다. 믿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시는데 그분들에게는 나의 삶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 나누면서 구독하는 법을 알려

드린다. 예전에는 수량이 많이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이 신문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뽑아서 앉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서 이제 2부만 신청하고 이전 호 신문까지 3부 정도 비치해놓으니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안 하신다. ‘최소한으로 최대치를 누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손님에게 대화로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복음기도신문은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문의 색이 바래지면 화장실에 비치해 놓고 잠깐 볼 일 보실 때도 시선이 신문으로 가게 하면서 주님은 가장 적당하게 사업장에서 활용하게 하심에 감사하다.

복음기도신문 한 면으로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믿는 분들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이 신문을 귀한 통로로 삼아주고 계심을 느끼며 나 또한 오는 손님들을 위해 손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질 때 주님의 인도 하심 속에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깨어 있기를 기도한다. [GPNEWS]

홍성문 집사 (나사렛 성결회 백향목교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4)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철학이나 종교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보게 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엡 1:18)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즉 교인들의 죄 된 욕구를 따라서 급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멀어질 수 있다. 중세에 타락했던 가톨릭은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덮어 놓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며 하며 헌금을 많이 받아내며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중세의 암흑시대를 만들어 냈던 교회의 비극이었다.

개혁을 했다는 우리 교회도 방심

하면 부르심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면 가짜에 팔렸던 우리 마음이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동됐던 사람은 인간들의 허접한 사랑을 갈구하고 쫓아다니는 비겁한 짓을 안한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복음의 영광 그리고 능력, 그 축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하늘의 향취로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속이고 지저분한 냄새 나는 세상을 뒤지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향취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연합했던 교회는 그의 품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멘.

교회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차신 분이다. 그 주님이 위대하시니 아무 것도 못 하고 못 배우고 의지도 박약해서 써먹을 것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세상이 감당 못 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한다. 진짜 연합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만나 변화되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놀랍게도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러스트=고은혜

복음이다. 아멘.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4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1. 모집 대상

- 2024학년 7월 기준, 초등학교 4학년(2014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2009년생) 연령대의 학생, 단, 고등학교 1학년(2008년생)은 중학교 3학년으로 1년 하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2. 입학설명회

-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4년 6월 10일(월)~2024년 6월 22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3.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4년 6월 29일(토)~2024년 7월 20일(토)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4.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2024년 7월 27일(토)
- 2차 'Camp, Go up to Hebron!': 2024년 7월 29일(월)~2024년 8월 2일(금)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됩니다.)
- 2차 합격자 발표: 2024년 8월 3일(토)
- 3차 최종면접: 2024년 8월 5일(월)~2024년 8월 7일(수)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년 8월 10일(토)
- 2024년도 입학식: 2024년 8월 27일(화)

5. 문의 및 접수처

- 입학사무처: 010-4936-4641, 010-7323-4641
- hebronschool@hanmail.net
- 우)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온수양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24:305 복음과기도미디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병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눈에 띄는 문장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신대요. 치료 잘 받고 계세요. 교회 갔다가 올게요.”

아빠를 뒤로하고 1박 2일 교회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러 갔다. 피리리링 피리리링 ~ 모두 다 잠이 들어 있는 새벽, 캠프장에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 “아빠가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그렇게 난 아빠의 죽음을 맞이했다. 아빠는 당뇨라는 오랜 지병이 있으셨고 당뇨합병증으로 응급상황을 여러 번 맞았다. 이때도 긴급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고 예전에 잘 회복 되셨기에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앞서 응급실에서 아빠의 숨이 곧 넘어갈 듯한 상황 속에 난 급히 아빠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아빠 한 번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다고 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빠는 끝끝내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렸다. 그런데 죽음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장례를 치르고 바쁘게 아빠의 짐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속에서 엄청난 공격이



일러스트=고은선

시작됐다. 아빠를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왜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했던 나의 모든 삶이 내 부모에게조차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은 정죄감이 밀려들기 시작하니 부끄러움과 허무함이 몰려왔다. 원망과 어둠으로 집 밖을 나서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고 아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후회스럽고 나 자신이 미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 달여를 골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읽은 글 하나가 내 마음을 찡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나요?” 이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내 모든 삶의 기반인 하나님을 거부하고는 살 수가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명제 앞에 나의 결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한 것이라는 결론을 찍고 나아가면 된다. 토기장이인 그분께 피조물인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대들 자격이 내게는 없

다. 비록 내 육신의 아버가 내 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소리를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해 내셨듯이 내 아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리라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 4:4)

아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니 그 말씀은 나를 어둠의 굴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했고, 내 평생에 의지할 말씀이 되었다.

올해가 아빠가 돌아가신 지 6주기이다. 그동안 내 앞에 넘기 힘든 산처럼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든 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심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GPNEWS]

이향민

데이터로 보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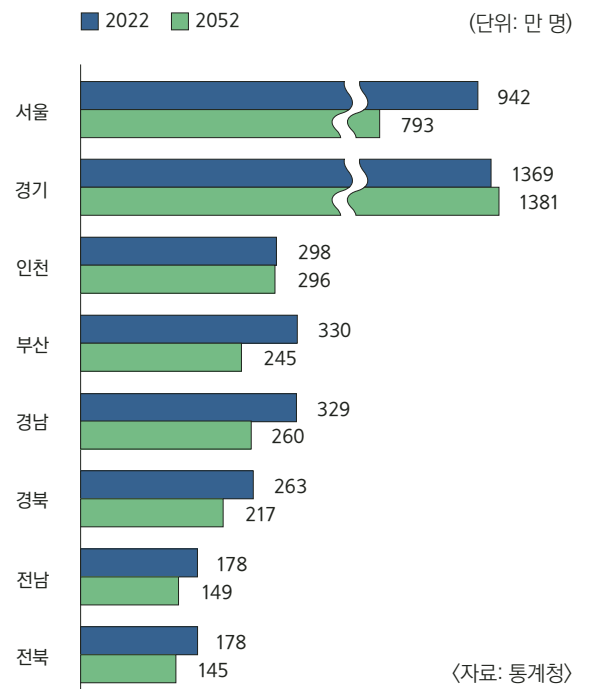


대도시 인구감소, 2052년 본격화

서울, 부산 등 15개 모든 도시에서

2052년부터 서울, 부산 등 우리나라 15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인구는 5167만 명에서 2052년 4627만 명으로 54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



(표 내용: 서울 인구는 942만 명에서 793만 명으로 감소하고 경기도는 1369만 명에서 1381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가 예상되며 인천은 298만 명에서 296만 명으로 소폭 줄어든다. 부산은 330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감소하며 경남은 329만 명에서 260만 명, 경북은 263만 명에서 217만 명, 전남은 178만 명에서 149만 명, 전북은 178만 명에서 14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도시에서 이미 시작됐으며 2045년부터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국에서 인구 감소를 맞게 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다음세대가 창조주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복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GP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전 北 고위관리 “김정은 두려워하는 외부정보 유입 역이용해야”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파악해 북한의 정권 교체와 한반도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



▲ 북한으로 현수막을 매단 풍선을 보내는 탈북민들. 출처: 유튜브 채널 YTN 캡처

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와 전직 북한 고위 관리 출신 리정호 KPDC(코리아변영개발센터) 대표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

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 정치와 언론이 북한 정권의 핵무력 강화, 군사 도발 등에 집중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김정은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과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측근에 의한 암살, 쿠데타, 미국으로부터의 선제 공격, 외부 정보 유입, 자신과 가족의 결점 노출, 개혁, 그리고 궁극적인 정권 붕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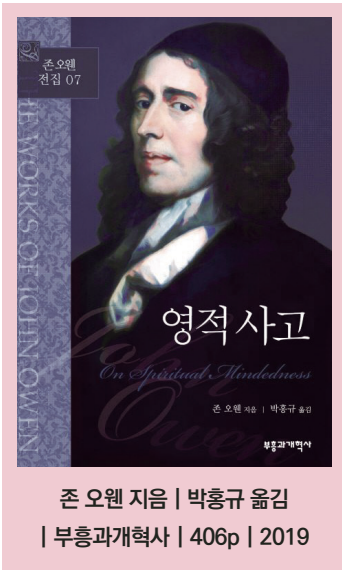
두려워한다고 분석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정보는 김정은에게 실존적 위협”이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한국군 및 미군의 대북 심리전과 더불어 과거 독재자의 비참한 운명, 남한의 발전된 영상 등이 담긴 자료를 북한에 전달하고, 미 의회가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대북 정보 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나 2020년 개성공단

폭파도 대북 전단으로 인해 재일교포 출신인 김정은 생모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백두혈통’ 정통성 약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대응이라고 공동저자 리정호 대표는 분석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배격법을 비롯해 더 엄격해진 외부정보 차단 및 통제 역시, 그가 얼마나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존 오웬 <영적 사고>

“영으로 사고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영적 사고 On Spiritual Mindedness 존 오웬 지음 | 박홍규 옮김 부흥과개혁사 | 406p | 2019

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했다. 그저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걷는 것이 미덕인 시간을 지나 생각의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잠시 멈춰서 고민해 보길 권한다.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영적 사고는 오래된 고전이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얻는 경쟁 한가운데 있다. 저자는 '하늘과 땅의 큰 경쟁은 우리가 사

람이라고 부르는 가련한 벌레의 감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다. 사람은 내면적 존재로 지음 받았기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의무나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어 우리의 감정에 손을 올리게 하고 지성으로 하여금 온 영혼이 세상의 이익을 향해 관심을 쏟리게 한다. 이 전쟁터에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인해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또한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죄의 가공할 만한 힘과 죄에 뒤따

르는 대가지불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죄의 내용에 빠져들게 만든다. 죄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게 끌고 가버린다. 죄의 결과를 묵상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저항할 힘을 잃고 죄 앞에 번번이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영적인 사고로 향하게 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의 길을 새로 낼 때 가능하다. 생각도 습관이다. 생각했던 그 길을 다시 가게 된다. 마치 압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눈으로 볼 순 없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향하도록 고정시켜 놓는 것이다.

영적인 감정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도 사라진다. 그런 감정이 우리의 사고의 길 즉 세계관을 구축할 수는 없다.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사고로 고정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끝끝내 나아가는 것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구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으로 사고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영적 사고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그분 안에서의 안식을 가져다준다. [GPNEWS] 최현정 선교사



“근데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어느 날, 야외에서 독서 토론 수업을 마치고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산책하던 중,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느껴 할머니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짧은 교제를 했다. 사실 할머니는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우리에게 용돈을 바라고 부르신 것이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한두 번 하셨던 게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돈과 장수보다 좋은 예수님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께서는 예수 이름이 나오자마자 질색하셨다. 더 깊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다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빵과 함께 찾아뵙기로 약속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드렸다. 그리고 나는 지체들이 먼저 나간 것을 보고 할머니와 불을 맞대고 껴안아 드렸다. 건강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드렸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주시는 할머니,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썼다. 우리가 찾아온 것을 제외하면, 아무리 봐도 노부부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한평생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사후에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사실이 한탄스럽게 느껴졌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영혼들이 산골짜

기 어느 마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요, 대한민국만이 아니요, 온 열방에 수도룩한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 선포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고 싶었다. 사실 작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패배와 실패했다는 마음의 낙인이 새겨져 있었다. 서울 변화가 한복판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세속의 허영에 완전히 주눅들어 있었다. 주님은 제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타협하며 불순종했다. 2차 전도여행을 이어가며,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을 보며 그와 다르게 패배하고 불순종한 내 모습이 아른거렸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식한 그의 지식과 언변이 아니라,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전도가 논리로 설득하고, 논쟁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고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그 사실을 알리는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내가 속해 있는 와이낫미션 선교사들은 순회선교단 한국본부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충북 단양 시장에 나가 전도를 한다. 무료로

느껴지지만 했던 이 시간이 마음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기회로 보였다.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돌아오는 반응을 볼 때, 처음엔 위축되었지만 전도 여행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대우들이 생각이 났다. 복음을 전할 때에 당연한 반응들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었다. 오늘 손가락 욱도 받아보고, 한심하게 쳐다보는 시선과 함께 뺨뺨기도 받았다. 그럼에도 짜증 내고, 한숨을 쉬고, 질색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 아주머니가 내게 화를 내시길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죄송하면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어머니, 저 21살이에요. 이런 취급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욱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하나고 인상을 찌푸리는 이들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선포하게 되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 목이 갈라지도록 외쳤다. 그리고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기뻐다. 비록 터무니없고, 막무가내 방법



으로 순종했는지 언젠가 주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100% 전부의 순종을 올려드린 것 같지는 않다. 머뭇거리고, 마음의 요동도 정말 컸다. 선물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드리기도 부끄러운 순종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순종을 기뻐해주셨다. “진호야, 괜찮아. 잘했어. 너의 순종으로 난 너무 기뻐다.” 선포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순종의 퀄리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주께 드리는 사랑의 순종을 원하신다. “주님 감사해요. 나도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주님께 더 순종하리라. [GPNEWS] 박진호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 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5. 16 ~ 6. 4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혜령 김두현 김선희 김세이 김송구 김애심 김윤석 김하임 김혜신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유정 안민자 안석문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윤혜균 이동엽 이연이 이영선 이영옥 이종훈 이진희 이향은 장옥경 정범영 정옥영 정유석 조복형 조형광 최영석 최은정 최점옥 홍인영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원교회 동원교회 마중물감리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독교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샘물교회천천 스테파니 시흥교회 안양구르터교회 열매교회 오에그교회 주나임교회 참종양터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